

공연·전시 보려면 '플레이광주' 접속하세요

문화토리, 플랫폼 오픈 문화소식 어플리케이션 첫 출시 지역 언론사 문화예술계 뉴스도

이번 주말 어떤 공연이 열리는지, 지금 제일 핫한 전시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 최근 광주 지역의 문화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오픈해 눈길을 끈다.

지역에서 문화공간조성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문화토리(대표 박지현)는 지난 9월 '플레이광주'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을 시작했다. 플레이광주는 광주의 공연·전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들은 앞서 제주지역의 문화 정보를 담은 플랫폼인 '플레이제주'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지역의 문화 소식을 담은 책자나 팸플릿 등은 많이 있었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현 (주)문화토리 대표는 공연, 전시 등의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을 돕

고자 플레이광주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플레이광주는 문화 뉴스부터 콘서트·뮤지컬, 연극, 클래식·오페라, 국악·무용, 전시, 행사·축제 등 지역의 모든 문화 정보를 담고 있으며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아티스트 정보와 광주 공연문화시설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플레이광주에서는 (주)문화토리가 추천하는 공연을 알려주는 '플레이광주 추천!'과 예술인과 인기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오늘의 아티스트', '핫! 플레이스' 등도 볼 수 있다.

현재 임현정의 '리스트 초절기교 에튀드 전곡', '보컬리스트 나윤선 리사이틀',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박수용의 'The Korean JAZZ All Stars', 김상운 1st 앨범 발매기념 쇼케이스 '너의 노래' 등이 '플레이광주 추천!' 목록에 올랐으며 '오늘의 아티스트'에서는 바리톤 김치영을 소개하고 있다. 또 '핫! 플레이스'에서는 비전 베이커리 카페 겸 인문예술서점인 '책과생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광주일보사 등 광주시 10여개의 지역

언론사 문화예술계 뉴스와 공연·문화시설 정보, 아티스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공연·문화시설에는 총 22개의 시설이 등록돼 있다. 이 중에는 국내 유일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광주 대표 공연장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갤러리 관선재, 미로센터, 예술공간 집 등의 정보를 담았다.

'아티스트DB'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인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한 서비스다. 아티스트에 대한 인물정보 및 섭외정보를 제공하며, 광주시립예술단부터 광주 출신인 가수 김연자, 국악인 김윤희 등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원재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뮤지컬배우 신영숙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플레이광주는 앞으로 문화예술인의 소장품 또는 그림 등 문화예술상품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인 '플레이광주 아트몰'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켓 예매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62-223-2231. /전문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외국의 유명도시들을 둘러 볼 때면 부러운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세계적인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 한가로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노천카페... 국내에선 보기 힘든 이국적인 풍경은 이방인에게 색다른 감흥을 안겨준다.

하지만 내가 진짜 부러운 건 이들이 아니다. 바로 번잡한 도시 곳곳에 숨겨져서 자리하고 있는 공원과 벤치다. 도시의 외곽이나 한적한 곳에 '숨어 있는' 광주와 달리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재차 방문한 유럽의 도시들이 그러했다. 동유럽의 보석으로 불리는 체코의 프라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명성과 달리 '정겨운

광장'에는 공원 보다 벤치가 눈에 많이 띄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어 카페를 찾다가 여기 저기 놓인 벤치를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광장의 벤치에 앉아 보는 뒤편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국내 같으면 스타벅스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셔야 되지만 이곳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

사실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척도는 화려한 인프라가 아니다. 흔히 내로라하는 문화도시인 빈, 런던, 뉴욕, 파리의 공통점은 '걷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다. 일찍이 서유럽과 경기가 '걷기 좋은 도시, 서울', '숨이 있는 도

'걷기 좋은 도시, 광주'

동네' 같았다. 물론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크고 작은 공원들이 싹틔출처럼 이어져 있어 번잡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프라하의 예술가 공간들을 둘러 보느라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 다녀야 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전혀 피곤함을 느낄 수 없었다. 관광 명소 주변과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 있는 공원과 벤치 덕분이었다. 오랫동안 걷다가 지칠 때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원과 벤치들이 지적에 있었다. 숙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공원'은 아담한 연못도 있어 '명대리'에 그만이였다. 고개를 돌리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연인들이 잔디에 누워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들이 펼쳐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독일의 문화도시 뮌헨은 프라하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 도시의 최대 변화가인 마린엔

시공간'을 모토로 산책로와 공원, 벤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도시 안에서 걷기와 휴식, 문화와 힐링이 가능한 보행친화도시야말로 광주가 그려나가야 할 미래상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건축가 유현준 교수(홍익대)가 저서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광주가 새겨 들어가야 할 대목일 것이다.

"미래 성패의 도시는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달려 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한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카페가 아닌, 공원과 벤치같은 공짜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을 수록 살기 좋은 도시다. 벤치가 가까이 있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시민들이 같은 추억을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 휴게 공간이 많은 도시가 곧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인 것이다."

〈제작국장·문화전문기자〉

PlayGwangju



'플레이광주' 홈페이지 모습.

세계를 매혹시킨 무용스타 최승희와 춤

문화예술작은도서관 인문학강좌 이숙영 교수 25~26일 '광고속...'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올해 마지막 인문학강좌는 춤에 관한 주제로 펼쳐진다. 오는 25~26일 오전 10시 문화예술작은도서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이번 강좌는 이숙영(사진) 조선대 교수가 '광고 속 춤 읽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1강의 주제는 '나에게 춤이란?'으로, 이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 무용스타 최승희 씨에 대한 이야기한다. 세계인을 매혹시킨 당대 최고의 무용스타 최승희 씨 작품을 감상하고 춤의 특징을 알아본다.



이숙영 교수는 조선대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목포대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며 수강료는 무료.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문의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강은 '광고 속 제품의 특징과 춤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어떤 브랜드 광고에서 무용을 가장 선호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광고 속 춤 이미지와 제품 간의 상관관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조명할 예정이다.

의병장 고경명 문학작 삶 조명 남구 고원회가옥서 28일 강연

제봉 고경명(1533-1592)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참전했다.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 아들 인후와 함께 전사했다.

고경명은 시와 글씨, 그림에 능했으며 시문집인 '제봉집', 무등산 기행물인 '서석록(瑞石錄)' 등을 남겼다. 의병장 고경명의 문학적인 삶을 조명하는 강연이 개최된다. 대중문화재단은 오후 28일 오후 12시 30분 광주 남구 고원회가옥 일원에서 '불천위, 세계의 시간'을 개최한다.

황수정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조빙교가 '고경명의 문학작 삶과 제화시'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70-4496-5518. /박성천 기자 skypark@

문화전당 활성화·협력 방안 모색 공론의 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5일 '달라진 문화전당...' 포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직제가 개편되고 인력이 확정됐다. 올해로 개관 6주년을 맞은 문화전당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있다.

문화전당 활성화와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달라진 문화전당, 그리고 광주!'를 주제로 포럼

을 연다. 이번 포럼은 아특별 개정안 이후 변화되는 문화전당의 모습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광주시,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은 송진태 호남대 예술대학장이 '아특별 개정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가야 할 길'로 주제 발표한다. 이경미 문화체육관광부 아문단장과 김요성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후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정정숙 광주관광재단 관광진흥팀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 이현미 광주민예총 사무처장,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김옥렬 광주전남민언련 상임대표, 주홍 메이플 큐레이터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